

나주호·약산호에 대규모 수상 태양광 발전 추진

농어촌공사, 탄도호 포함 담수호 3곳...발전 규모 247MW급 시행 업체 선정 등 사업 추진...개발 인허가 절차 등 갈 길 멀어

한국농어촌공사가 약 247MW급 대규모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민간 투자를 유치해 공사 소유의 담수호에 태양광 사업을 추진키로 했는데, 인근주민과 환경단체 등 사업을 두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데다 이번 정부 들어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부정적 기조가 있다는 점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최근 민관 상생형 신재생 에너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발전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선정된 사업 시행사(업체)가 공사 소유 담수호와 저수지에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한 뒤 일정 부분을 공사에 양도·양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사가 수상 태양광 사업에 적극적인 것은 시공은 물론 각종 인허가와 주민 민원 해결 등은 업체가 책임지고 공사는 수면 점용료와 일부 발전시설(20%)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담수호는 발전 규모 130MW급 경기 탄도호, 97.5MW급 전남 나주호, 20MW급 전남 약산호 등 3곳으로 총발전 규모는 247.5MW에 달한다.

태양광 시설은 지역에 따라 전체 만수(滿水) 면적의 10~20%에 들어선다.

전체 사업비는 45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발전 규모(500MW급)가 커 사업 추진에 부담이 큰 경기 아산호와 충남 간월호는 이번에 배제됐다.

공사는 선정 업체와 세부적인 실시협약과 각종 인허가를 거쳐 2027년부터는 상업 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행 업체는 선정됐다고는 하지만 각종 개발 인허가 절차를 넘어야 하는 데다 수질오염, 태양광 발전사업 납탈 등을 주장하는 주민 반발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특히 본격 인허가 절차에 들어가면 각 사업 주변 지역 주민들의 찬반 논란과 환경단체의 반대 움직임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탄도호의 경우 경기지역에 있어 송전선로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지만, 전남에 위치한 나주호와 약산호는 송전선로 확보도 여의찮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농어촌공사는 2018년부터 전남 고흥호(83MW급) 등 3곳에 수상 태양광 사업을 추진 중이 나으나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인 고흥호를 제외하면 행정절차(석문호·90MW급)가 진행 중이거나 일부만 공사에 착공(대호호·98MW급)하는 등 추진 속도가 더디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주민 민원 해소와 지역 상생을 고려해 사업비의 4% 이내에서 지역 주민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며 "이들에게는 연리 7% 정도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관 상생형 에너지 사업이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연합뉴스

비트코인 가격 5.3% 급등 한국 점유율 12.9%로 확대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15일(현지시간) 5.3% 이상 오른 3만7978달러(약 4958만원)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약 125% 상승했다. 최근 한 달간은 40%가량 올랐다. 지난 2021년 말의 가상화폐 열풍 때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최근 상승세는 높은 편이다.

디지털 자산시장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10월 초부터 상승세를 보였다.

아시아, 특히 한국의 투자자들이 지난 두 달간 비트코인을 많이 샀으며, 차익도 많이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비트코인 거래 시장 점유율은 지난 11월 5.2%였으나 11월에는 12.9%로 급등했다.

/연합뉴스



'K-김밥' 글로벌 입맛 사로잡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필리핀계 대형유통매장 '씨푸드 씨티마켓'에서 미국 현지인들이 한국 김밥을 맛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미국 대형유통매장과 연계한 김밥 홍보 판촉전을 펼쳤다. <aT 제공>

'심리 위축' 자영업자들, 자녀 학원비도 줄인다

소득 수준별 지수 양극화 심화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엔데믹을 맞았지만 여전히 불황을 겪으며 자녀 교육비 지출마저 힘겨워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의 교육비 지출 전망 지수(CSI)는 93으로 집계됐다.

이 지수가 100을 밑돈 것은 조사 대상 가운데 6개월 후 교육비 지출을 지금보다 줄이겠다는 응답이 늘리겠다는 응답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자영업자의 교육비 지출 전망 지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지난 2020년 2월(99) 100선 아래로 떨어진 뒤 지난달까지 단 한 번도 100선을 회복하지 못했다.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4년여 동

안 내내 100선을 웃돌던 것과 비교하면 자영업자들이 입은 충격을 가늠해볼 수 있다.

이는 부급 생활자들의 교육비 지출 전망 지수가 지난 2020년 3월 99로 떨어진 뒤 5개월 만인 8월 102로 급세 회복한 것과 대조된다. 지난해 1월 109까지 올랐다가 지난달 102를 기록했다.

소득 수준별 지수에서는 '양극화'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월 소득 500만원 이상과 100만원 미만 응답자의 교육비 지출 전망 지수는 지난달 각각 105와 92로 큰 격차를 나타냈다. 500만원 이상은 2020년 4월 잠시 99로 떨어진 것을 제외하면 2008년 7월 이후 15년 넘게 100선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었다.

반면, 100만원 미만은 2012년 12월(104) 이후 11년 가까이 100선을 넘어서지 못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협광주공판장, 광주천 일대 ESG플로깅



농협경제지주 광주공판장은 지난 15일 광주천변 일대에서 플로깅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행사에는 정구영 광주공판장과 농협광주공판장 임직원 20명이 참여해, 범농협 ESG 활동 실천을 위해 6km의 하천변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고 분리수거를 실시하는 등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도 우수콘텐츠 공모전

24일까지 접수 마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오는 24일까지 전남의 문화·예술·관광자원을 활용한 대표콘텐츠 발굴 및 후속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전남도 우수콘텐츠 공모전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전남도에 분사가 소재한 문화콘텐츠 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전남만의

특색을 담은 디지털 콘텐츠 형태의 문화콘텐츠면 어느 작품이든 신청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진흥원 누리집 내 사업공고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참가신청서, 콘텐츠 소개서, 지적재산권 증명 서류 등과 함께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진흥원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3개 작품을 선발하고, 선정된 작품에는 전남도지사상, 전남정보문화산업진

흥원장상을 수여한다. 또 12월에 개최될 전남도 콘텐츠 페어의 콘텐츠 전시와 함께 2024년도에는 1800만원에서 최대 2400만원까지 마케팅 지원 등 추가 혜택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인용 원장은 "전남을 대표할 우수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전남 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우수콘텐츠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합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